



‘오징어게임’ 또다른 주역 정호연, 세계가 시선집중

美, SAG 여자연기상 9위로 예측
홍콩매체 ‘발돋움한 여배우’ 1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주연 이정재 등이 내년 미국 주요 시상식에 후보로 오른 가운데 또 다른 주역 정호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다양한 시상식의 수상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 골드더비와 홍콩 주요 언론이 그에게 주목하고 있다. 연기 데뷔작으로 거둔 성과라는 점에 더더욱 눈에 띈다.

20일 골드더비 집계를 보면 ‘오징어게임’의 정호연은 내년 1월 SAG(Screen Actor's Guild·미국배우조합)의 TV드라마 부문 여자연기상 후보 물망에 올랐다. 골드더비는 사이트의 편집자 및 이용자, 전문가 등이 투표에 참여해 결과를 예측한다.

골드더비가 목록에 올린 SAG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배우단체로, 매년 영화와 TV드라마 등에서 활약하는 배우들을 선정, 시상한다. 부문별 후보는 내년 1월13일 발표된다. 앞서 2020년 송강호·이선균 등 ‘기생충’ 출연진이 SAG 최고 영예인 영화부문 앙상블상을, 올해 ‘미나리’의 윤여정이 영화부문 여우조연상을 각각 받았다.

정호연은 골드더비 예측에서 20일 현재 1위인 ‘더 모닝쇼’의 제니퍼 애니스톤을 비롯해 ‘섹션’의 사라 스눅(2위)·‘더 모닝쇼’의 리즈 위더스푼(5위) 등과 경쟁하고 있다. 이들에 이어 SAG 여자연기상 후보 지명 90분의 1 확률로 9위에 올랐다.

또 ‘오징어게임’에서 호흡을 맞춘 이정재를 비롯해 이병헌·오영수·박해수·위하준·허성태·김주령·아누팜 트리파티 등과 함께 SAG TV드라마 부문 앙상블상을 받을 것으로도 예측되는 걸을 끈다.

홍콩 유력매체인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는 최근 ‘2021 발돋움한 한국 여배우’ 10명을 선정하면서 정호연을 첫순에 꼽았다. 매체는 정호연이 데뷔작인 ‘오징어게임’에서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게임에 나선 탈북자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 주목 받았다”고 썼다. 이어 “의심의 여지없이 첫 TV시리즈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올해 가장 빛나는 신인”이라고 덧붙였다. 또 “샤별, 루이뷔통, 펜디 등 모델로 활동했고, 연기 데뷔 이후 수백만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추가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그는 ‘오징어게임’ 공개 이전 40만명이었던 SNS 팔로어가 최근 2370만명으로 급증할 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KBS2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유승호

“유승호표 사극에 중독될걸요?”

헤리 덕분에 긴장 덜면서 촬영
변우석·강미나와 팀워크도 굿
시청률 10% 댄 연탄 기부할것



“유승호표 사극의 귀환!”

배우 유승호(28)가 사극으로 돌아왔다. 20일 첫 방송한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가 새 무대다. 그가 한복 차림으로 카메라앞에 서기는 2017년 MBC ‘군주-가면의 주인’ 이후 4년 만이다.

드라마는 시청자 사이에서 유승호가 주연하는 사극으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아왔다. 기대감은 유승호의 나이보다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다. 아역 출신인 유승호는 2004년 KBS 1TV ‘불멸의 이순신’, 2009년 MBC ‘선덕여왕’, 2011년 SBS ‘무사 백동수’ 등 여러 편의 사극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연출자 황인혁 PD와 상대역 헤리까지 “유승호 사극”을 시청 포인트로 꼽을 만큼 그에게 기대고 있다.

유승호는 첫 방송을 앞둔 이날 오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기대)민망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동안 쌓은 데이터를 잘 활용해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찍었다”며 수줍게 웃었다.

●“사극의 매력에 중독”

금주령이 내리진 조선 후기를 배경 삼은 드라마에서 유승호는 밀주꾼을 단속하는 감찰관 남영을 연기한다. 밀주꾼 헤리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묘한 로맨스도 피워낸다.

최근 해외에서도 인기를 높이는 사극 로맨스 장르물이다. 14일 12.1%(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증명해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4위까지 오른 ‘연모’의 후속작이기도 하다.

“사극은 현장에서 뿔어져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달랠요. 현대가 배경인 드라마보다 준비할 것이나 불편한 점도 많지만,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중독성이 강하다고 할까요. 간접적으로나마 과거를 경험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올해 데뷔 21년 차인 유승호는 현장에서 ‘베테랑’으로 통한다. “카메라앞에 서면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 성격은 여전하지만, “침착하고 차분하고 울퉁은” 면모로 동료들을 든든하게 떠받친다.

“극중 남영은 원칙주의 성격이 강해요. 실제와 비슷한 구석이 있죠. 다만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헤쳐 나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원래도 긴장을 많이 하는데, 이



그동안 사극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유승호가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를 통해 또 한번 흥행에 도전한다. 20일 첫 방송에 앞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S

번에는 톡톡 튀는 성격의 헤리 덕분에 촬영마다 긴장을 덜 수 있었어요.”

●시청률 10% 넘으면 연탄 기부

드라마는 사전 제작돼 지난달 모든 촬영을 마쳤다. 유승호는 한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함께 촬영한 헤리는 물론 변우석, 강미나 등 동료들과 “정이 담뿍 들었다”고 말했다.

“착하고 성격 좋은 포대들과 즐겁게 촬영했어요.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시면 팀워크가 고스란히 드러날 거예요. 한여름 무더위에 힘들 법도 한데 인상

한 번 쯤그리지 않고 에너지를 전파해 준 헤리와 동료들 덕분에 저 또한 힘내서 촬영했어요.”

유승호는 동료들과 시청률 공약도 내놨다. “연탄 기부”이다.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청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시청률이 10%를 넘으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주연 넷이서 각 1000장씩 4000장의 연탄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공약, 꼭 이행하고 싶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트와이스, 내년 2월 월드투어 티켓 매진



트와이스

그들 트와이스가 내년 2월 미국에서 여는 월드투어의 모든 회차의 티켓을 매진 시켰다. 20일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내년 2월 네 번째 월드투어 ‘쓰리(III)’를 내년 2월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뉴욕, 애크랜트 등 모두 5개 도시에서 7회 공연하는 가운데 모든 티켓을 팔아치웠다. 특히 최근 추가한 2회의 추가 공연까지 전석 매진됐다. 트와이스는 이에 앞서 25·26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육경기장)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MSG워너비, ‘MBC 방송연예대상’ 축하공연

그들 MSG워너비가 다시 뭉쳐 무대에 선다. MBC ‘놀면 뭐하니?’가 배출한 프로젝트그룹 MSG워너비가 29일 오후 8시40분 생방송하는 ‘2021 MBC 방송연예대상’ 무대에서 축하공연을 펼친다. MSG워너비는 별루지(지석진)·김정수(김정민)·강창모(KCM)·정기성(썩디)·이동휘·이상아·박재정·원슈타인으로 구성된 8인조 그룹이다. ‘상상더하기’ ‘나를 아는 사람’ ‘바라만 본다’ 등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모았다. 멤버 가운데 이상아는 전현무·김세정과 함께 이번 생방송 무대를 진행하는 MC로도 나선다.

BTS, 6년 연속 ‘세계인이 사랑하는 K팝 가수’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6년 연속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케이(K)팝 가수’로 뽑혔다. KBS 월드라디오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 세계 208개국 12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벌인 ‘올해의 가수’ 설문조사에서 BTS가 24.98%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KBS 월드라디오가 2016년부터 실시한 같은 설문에서 6년 연속 정상을 올렸다. 또 ‘올해의 보이그룹’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는 ‘버터’(2위), ‘퍼미션 투 댄스’(4위), ‘다이너마이트’(5위) 등 세 곡이 선정됐다. 한편 BTS는 이날 ‘버터’로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영화 ‘특송’ 아트웍 작품 NFT로 판매

박소담 주연 영화 ‘특송’의 아트웍 작품이 NFT(대체불가토큰)로 나온다. 영화 투자배급사 NEW는 20일 국내 최초로 영화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제너러티브 아트’ 형태의 NFT를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에서 29일 선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2일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 ‘제너러티브 아트’ 방식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해 서로 다른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조합해 각각의 NFT가 희소성을 갖도록 한다. 이에 앞서 이달 28일 메타버스 플랫폼 커밍-엠에서 열리는 NFT 작품 전시회 ‘트레저스 M’을 통해 ‘특송’의 메인 예고편을 상영한다.

정재형, ‘앙리 마티스’ 전시회 해설 맡아



정재형

가수 정재형이 ‘앙리 마티스:라이프 앤 조이’ 전시회에 음악감독 겸 오디오 도슨트로 나선다. 20일 소속사 안테나에 따르면 정재형은 21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앙리 마티스:라이프 앤 조이’ 전의 음악감독과 전시 해설을 맡는다. 이번 전시회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 200여점과 영상, 사진 등을 전시한다. 안테나는 “정재형이 낭만적인 목소리로 전하는 전시 해설이 이번 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 김재권 기자 bong82@donga.com

역사 왜곡 논란 ‘설강화’...광고업계도 손절

시청자들 제작지원 제품 불매 의사
일부 업체들 협찬·지원 중단 발표

방송 전부터 말도, 탈도 많았던 JTBC 새 토일드라마 ‘설강화’가 위기에 놓였다. 18일 이후 19일까지 2회분이 방송된 상황에서 극중 설정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 속에 시청자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일부 협찬사가 지원 및 협찬을 철회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설강화’는 정해인과 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가 주연하는 드라마로, 1987년 민주화운동 시기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주인공인 여대생과

남파간첩의 멜로 라인이 그려지고,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인식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과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드라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 동의자는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 20일 오후 27만명을 넘겼다.

또 드라마 제작 지원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의사가 잇따르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드라마 ‘설강화’ 지원 회사 리스트”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해당 글에는 제작 지원과 제품 및 장소 협조에 참여한 업체명과 공식 SNS 등이 담



설강화

겼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퍼 나르면서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설강화’ 제작 지원과 협찬을 취소하겠다고 ‘손절’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현재 넷츠웨이크를 비롯해 다이슨, 조스라운지, 도평요, 짜리재마을, 가니송, 한스전자, 흥일가구 등이 지원을 거뒀다. 각 업체는 “드라마 ‘설강화’의 역사 왜곡 논란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면서 협찬과 지원을 중단했다.

또 정해인이 모델로 활동해온 치킨 브랜드 푸라닭도 지원을 거두기로 했다. ‘설강화’가 사전 제작된 드라마여서 이들 업체들의 브랜드는 일부 삭제되거나 수정돼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3월 엇비슷한 논란 속에 비판을 받으며 결국 방송을 중단한 SBS ‘조선구마사’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설강화’의 제작진이 이번 입장을 밝히며 파문을 가라앉힐지 주목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